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논의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전략



2023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농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I 논의배경 및 목적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 주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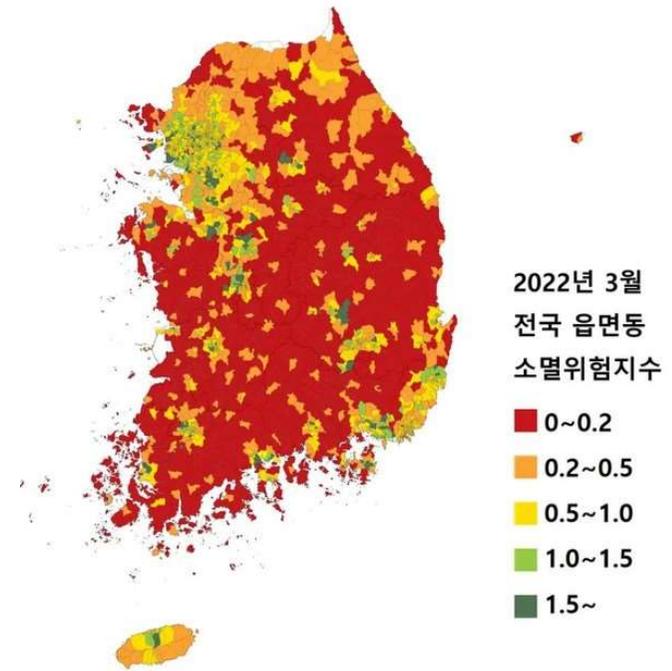
<p>생물다양성 주류화</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국민 인식제고 ② 전략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④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p>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식지 손실저감 ② 취약 생태계 압력감소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④ 오염물질 저감
<p>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호지역 확대·관리 강화 ② 생태계 복원 ③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④ 유전적 다양성 촉진
<p>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③ 나고야의 정서 이행 ④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p>이행력 증진기반 마련</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협력 강화 ②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③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I 논의배경 및 목적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I 논의배경 및 목적

농업농촌의 다기능성과 공익적 가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281조원>

토양 양분공급 179조 8천억원
 자연자원순환 79조 1천억원
 식량생산 10조 5천억원
 탄소저장 6조 5천억원
 수자원 4조 5천억원

자료: 농촌진흥청 2018.

I 논의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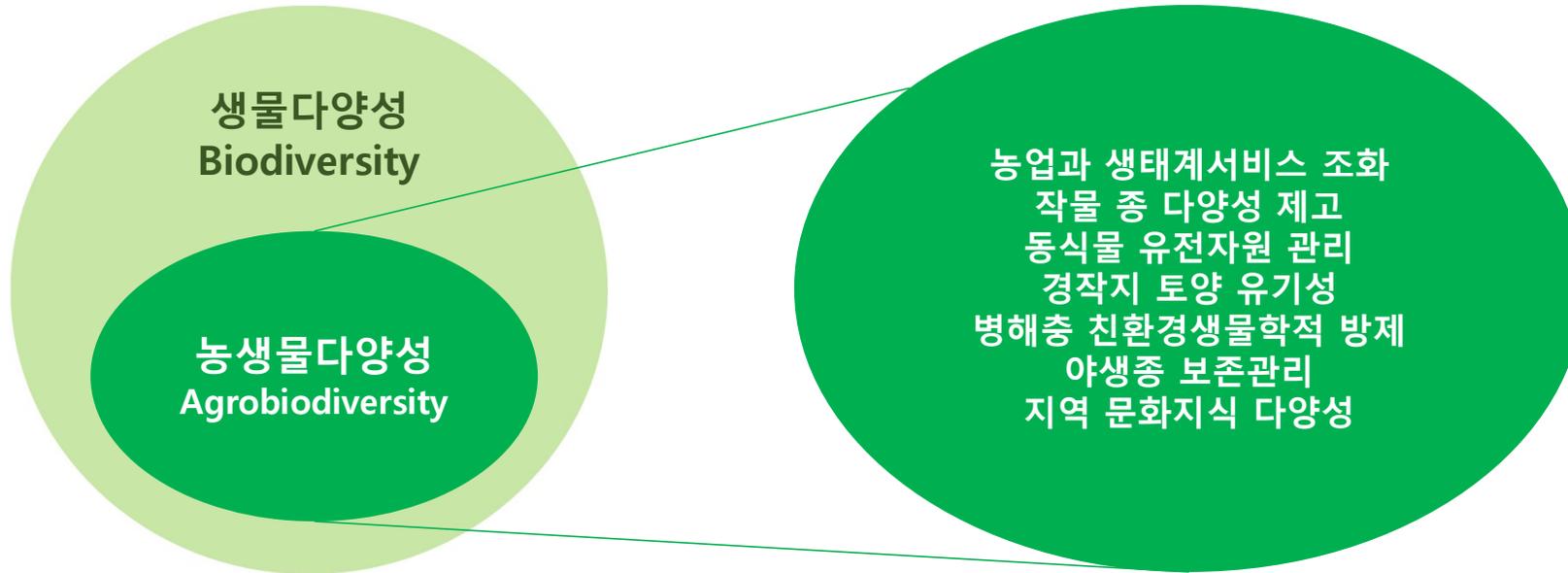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자료: 농사로 홈페이지

I 논의배경 및 목적

농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10대 원칙과 조건

1. 건강한 토양(흙)
2. 기후변화 탄력성
3. 작물 영양소
4. 여성농민 생계 보장
5. 로컬 지식 공유
6. 유전자원 보전
7. 청년농부 역량강화
8. 경제기회 창출
9. 탄력적인 토지 사용
10. 토착 지식과 원주민 보호

II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세계농업유산시스템 개요

세계농업유산의 정의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연환경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로 적응시키고 공존하면서 진화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



2002년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 주관 도입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제안하여, 전통농업, 생물다양성, 농업 경관 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식량안보와 빈곤 완화에 공헌하는 농촌개발을 유도하여 차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목적

우리나라는 2012년 국가농업유산제도 도입,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활용' 법적 근거 마련(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 30조 2항), 2021년까지 17개 지정

24개국 72개소 세계중요농업유산 도입 (2023년 4월 15일 기준)

한국 5개소: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금산 전통 인삼, 담양 대나무밭



II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FAO세계농업유산 등재 기준

- 
식량 및 생계 안정성(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지역공동체의 **식량 및 생계안정성** 기여, 공동체 내에서 공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농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농업
- 
농업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농업, 목축, 임업, 어업 등 식량 및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로 정의된 **농업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 
지역적·전통적 지식체계(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농업, 임업,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생물종, 토지, 수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한 **독창적인 적응기술 및 관리시스템의 보전·관리 지식**
-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문화적 정체성과 장소성은 특정 지역에 내재되어 있으며, 자원관리 및 식량생산과 관련된 사회조직, 가치체계, 문화적 관행은 자원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의식, 종교를 포함한 규범과 관행의 형태**를 취함
- 
육지경관과 해양경관의 특징(Landscape and Seascape Feature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안정화되면서 느리게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육지경관이나 해양경관**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경관접근법(Landscape Approach) 개요



사회생태 생산적 농산어촌경관(SEPLS)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 and Seascapes, SEPLS

지역사회의 독특한 기후, 지리, 문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류(주민)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다양성 유지향상에 기여하고 인간의 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산출하는 농산어촌 경관

사토야마(里山)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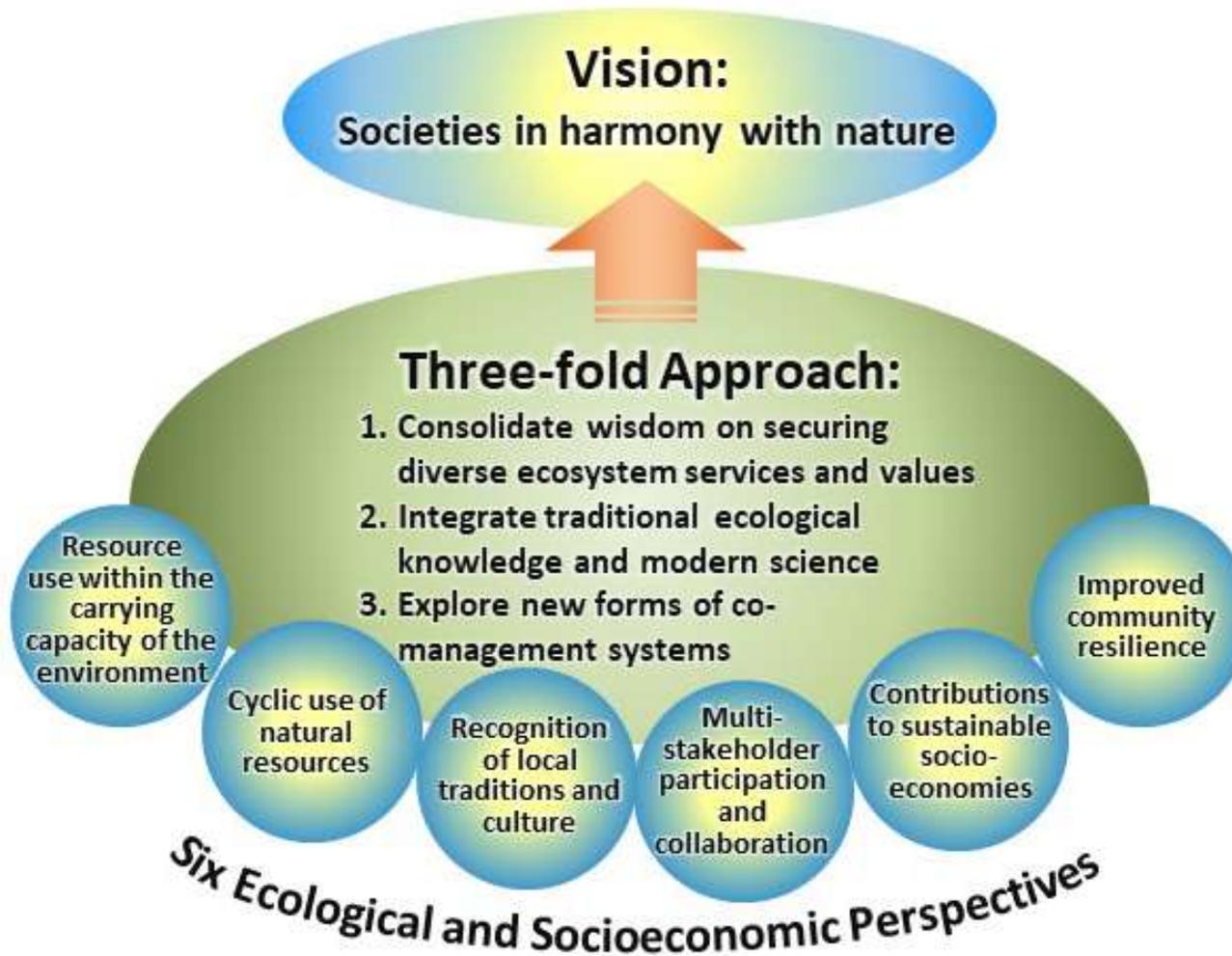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UNU(유엔대학)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니셔티브

일본의 사토야마 및 사토치 같은 지역(사회생태 생산적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국제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Satoyama Initiative, IPSI)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어 UNU-IAS(유엔대학 지속가능성고등연구소)가 사무국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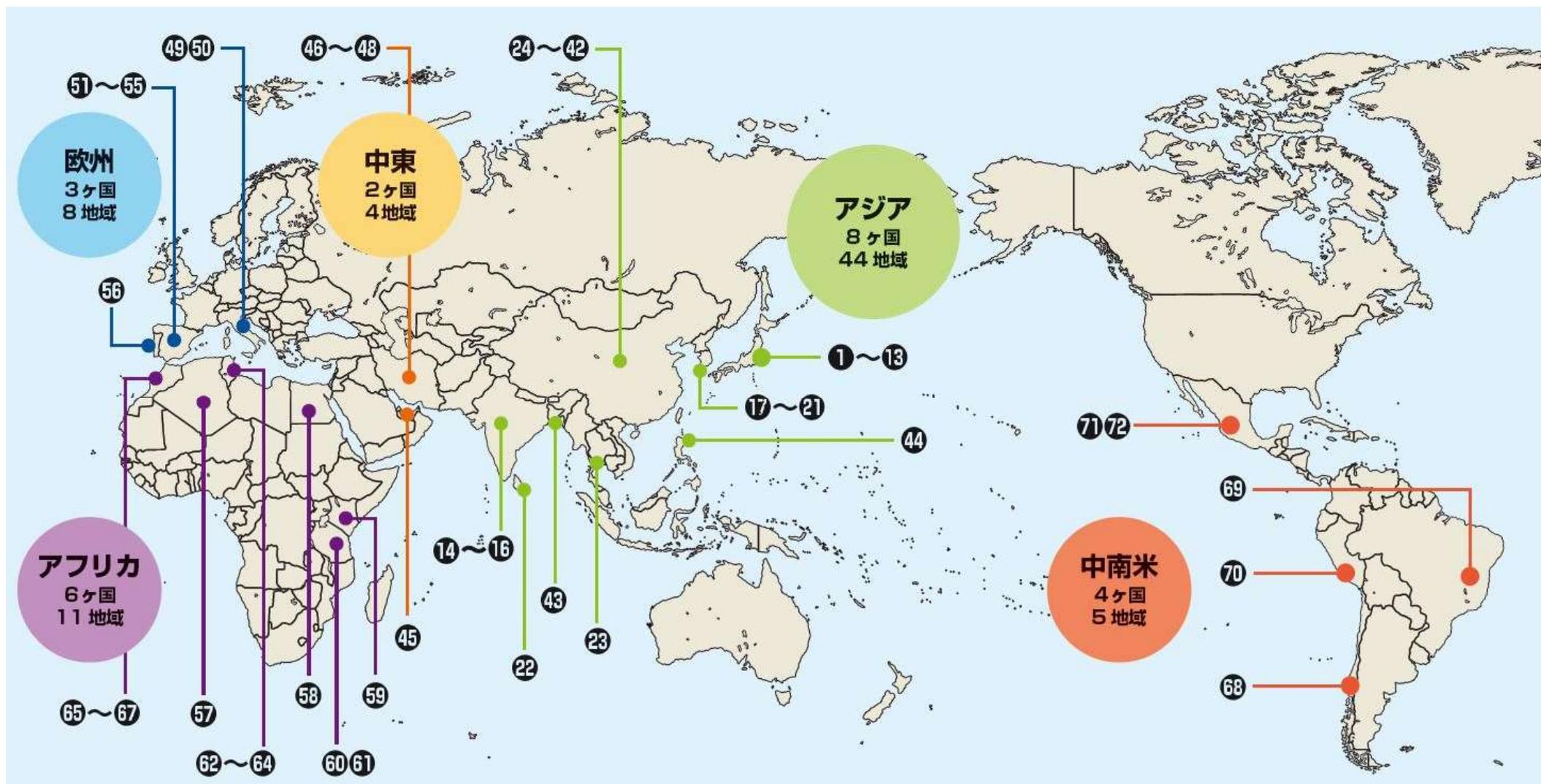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사토야마 이니셔티브의 개념과 접근법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22개국 72개소(2023년 4월 15일 기준)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일본세계중요농업유산 13개소 (2023년 4월 15일 기준)

<p>平成23年度 認定</p>	<p>A</p>  <p>新潟県 佐渡市 (平成23年6月認定)</p>	<p>B</p>  <p>石川県 能登地域 (平成23年6月認定)</p>		
<p>平成25年度 認定</p>	<p>C</p>  <p>静岡県 掛川周辺地域 (平成25年5月認定)</p>	<p>D</p>  <p>熊本県 阿蘇地域 (平成25年5月認定)</p>		<p>E</p>  <p>大分県 国東半島宇佐地域 (平成25年5月認定)</p>
<p>平成27年度 認定</p>	<p>F</p>  <p>岐阜県 長良川上中流域 (平成27年12月認定)</p>	<p>G</p>  <p>和歌山県 みなべ・田辺地域 (平成27年12月認定)</p>		<p>H</p>  <p>宮崎県 高千穂郷・椎葉山地域 (平成27年12月認定)</p>
<p>平成29年度 認定</p>	<p>I</p>  <p>宮城県 大崎地域 (平成29年12月認定)</p>	<p>J</p>  <p>静岡県 わさび栽培地域 (平成30年3月認定)</p>		<p>K</p>  <p>徳島県 にし阿波地域 (平成30年3月認定)</p>
<p>令和4年度 認定</p>	<p>L</p>  <p>山梨県 峡東地域 (令和4年7月認定)</p>	<p>M</p>  <p>滋賀県 琵琶湖地域 (令和4年7月認定)</p>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일본국가농업유산 22개소 (2023년 4월 15일 기준)



山梨県峡東地域



静岡県わさび栽培地域



三重県鳥羽・志摩地域



三重県尾鷲市、紀北町



滋賀県琵琶湖地域



兵庫県兵庫美方地域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도쿠시마현 니시아와 (徳島県にし阿波)



Ⅲ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접근법

도쿠시마현 니시아와 (徳島県にし阿波)



IV 국내농어업유산보전제도

국가농어업유산



IV 국내농어업유산보전제도

지역농어업유산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1]

(제정) 2020-04-01 조례 제 4697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4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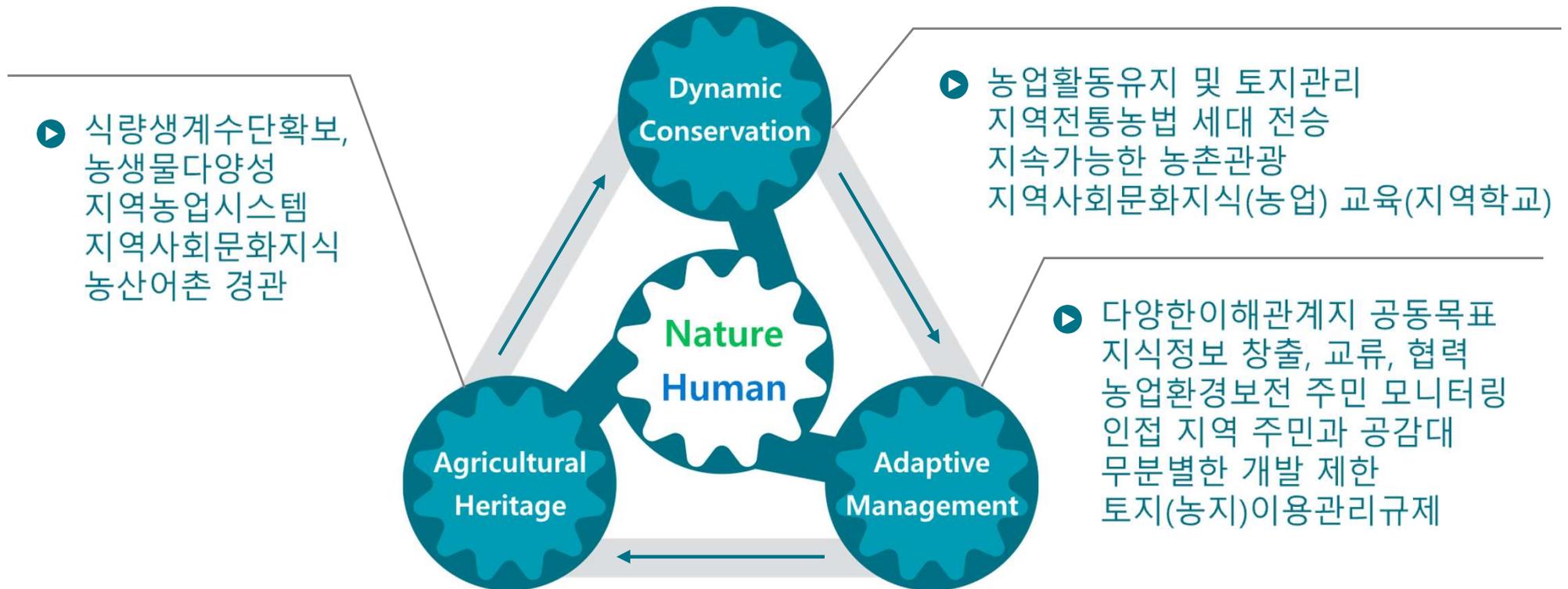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및 관리근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이하 ‘농어업유산’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V 농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지역균형발전 전략

농산어촌 경관 중심 농업유산보존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조화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주제별 컨퍼런스

「농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토론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단감팀 안성규 팀장

2023. 09. 14.

창원특례시는 과거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된 103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단감은 우리나라 1위, 세계 1위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으나 특이하게 창원시 동읍, 북면 일대 약 900만㎡ 규모의 자연늪인 주남저수지 둘러싸고 있는 독뢰라고 불리는 낮은 산지에서 약 9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을 살펴보면, 창원시는 2019년, 2020년 2번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3번 만에 창원독뢰감농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초기 등재 준비하면서 최고 특산물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이 떨어진 주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은 씨로 번식이 되지 않고 떨어진 감이든, 단감이든 맛있는 감나무의 가지를 가져와 접을 붙여야지만 좋은 나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서는 단감이 재배되고 있지만 창원시 동읍 다호리의 2100년전 고분군 유적지에서 감이 발견되었는데 이때의 감은 분명 떨어진 감일 것입니다. 2100년전의 감농업과 지금의 단감농업이 이어져 온 흐름과 과정 설명이 또한 미흡했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번 떨어지면서 전문 연구기관, 연구자분들과 함께 깊이 있고 과학적인 연구가 오래 진행되었고, 동시에 2008년 람사르총회가 개최된 생태계 보고 주남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단감 재배지가 도시확장과 무분별한 개발 막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 때문에 친환경재배를 해야하고 여러 생태적 이점을 제공하는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과 함께 단감농업의 가치 보전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떨어진감나무와 단감나무는 재배법은 동일하나 재배적정기온만 약 3도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년전쯤 부터는 생계유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떨어진감나무를 키워왔던 창원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단감나무의 가지를 떨어진감나무에 접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감고목지도 편찬과 지형연구 통해 독뢰에서 떨어진감나무를 대목해서 단감나무가 키워진 100년 이상 집단 재배지를 지도화 하였고, 이곳 유산 핵심존으로 하여 주변 체험마을과 단감테마공원등과 연계하여 체험과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단감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것은 세계 1등 브랜드 가치 홍보와 먹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B품에 대한 대량소비 방안 마련을 통해 전체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전해야 할 창원감농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의 ESG경영 분위기에 맞춰 최근 2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과 제품출시와 매장운동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단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작목반 78개가 참여하는 단감생산자협회를 조직하였고, 지자체 업체에서 전량 가공하고 대기업에 공급할 조직인 창원시단감가공기업협의체를 조직하였으며, 독립된 제품개발과 가공품의 안정공급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창원감농업을 어떻게 센스있게 알려 나가고 실제 소비할 수 있는지 실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